

내년 도쿄올림픽 축구 1997년생도 뛴다

FIFA 실무그룹 회의서 결정
 김학범호 11명 참가 자격 유지
 6월까지 모든 남녀 A매치 중단
 여자축구 최종예선 PO도 재연기

내년으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축구 경기에 1997년생의 참가가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와일드카드 역시 그대로 3명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성된 실무그룹의 첫 번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FIFA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대유행함에 따라 사무총장과 대륙연맹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꾸려 이날 전화로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남녀 국가대표팀 간 경기(A매치), 도쿄 올림픽, 연령별 월드컵 등에 관한 안건이 논의됐으며 만장일치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실무그룹이 FIFA 사무국에 권고하기로 한 사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출전 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실무그룹은 "출전 자격을 원래대로 유지한다"면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선수와 3명의 주

가 선수"라고 밝혔다. 올림픽 남자 축구 경기에는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23세 이하(U-23)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다. 단, 팀당 18명의 엔트리 중 3명에 한해 와일드카드를 24세 이상 선수가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내년에 24세가 되는 1997년생 선수의 출전 자격을 놓고 혼선이 생겼다. 물론, 1997년생들이 올림픽 예선에서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하며 본선행에 큰 힘이 됐던 터라 이들에게 출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대한축구협회(KFA)도 지난달 FIFA에 공식 서신을 보내 "올림픽 출전을 위해 예선을 치르고 준비해 온 선수들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회가 연기돼 본선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1997년생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FIFA 실무그룹도 1997년생의 참가 자격 유지에 찬성했다. 이는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올해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해 치러진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일군 한국 대표팀의 경우 당시 대회에 참가한 23명의 선수 중 11명이 1997년생이었다. 이유현(전남), 송범근(전북), 원두재, 이동경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사우디를 꺾고 우승한 김학범 감독과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 울산), 김진규, 이동준(이상 부산), 강운성(제주), 김동현(성남), 김대원, 정승원, 정태욱(이상 대구) 등이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FIFA 실무그룹은 오는 6월까지의 모든 남녀 A매치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예선도 포함된다. 이로써 6월로 미뤄졌던 한국-중국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도 다시 연기된다. 또한 FIFA U-20 여자 월드컵, U-17 여자 월드컵도 무기한 연기된다. /연합뉴스

코로나에도 축구 리그 강행...용감한(?) 나라들

벨라루스축구협회 "리그 중단할 이유 없다"...지난달 19일부터 새 시즌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구촌 스포츠가 사실상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프로축구 리그를 진행 중인 벨라루스가 여전히 리그를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르헤이 자르데츠키 벨라루스축구협회 사무총장은 3일(이하 현지시간) ESP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리그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프로축구 최상위리그인 프리미어리그는 지난달 19일 새 2020시즌을 시작했다. 지난달

19~22일 1라운드, 28~30일 2라운드가 8경기씩 정상적으로 열렸다. 3일엔 디나모 민스크-토르페도, 벨시나-하라제야가 3라운드 경기를 치렀고, 주말에도 일정이 이어진다. 벨라루스에선 3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4명이 사망했다. 확진자 수만 보면 다른 국가보다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달 31일에 첫 사망자가 나오고 이달 1~2일 사이 확진자가 100명 넘게 늘어난 등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벨라루스 정부는 국제적인 예술, 스포츠, 학술 행사를 6일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2일 발표하기도 했으나 축구 리그만큼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자르데츠키 사무총장은 "매일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현재로서는 리그를 멈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나라의 상황이 무척 심각하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으나 당국과 협으로 우리는 리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리그"라는 수식어에 대해 자르데츠키 사무총장은 "우리가 바란 상황은 아니었지만, 벨라루스는 대회를 중단할 정도로 위태롭지 않다"고 말했다. 자르데츠키 사무총장에 따르면 리그 평균 관중은 1000명 선이다. 그는 "관중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르데츠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넘쳐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축구가 휴식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타지키스탄도 2020 시즌 개막 강행...선수들 악수 대신 가슴에 손 얹고 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프로축구가 멈춰서다시피 한 가운데 타지키스탄 프로축구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2020시즌을 시작했다. AP통신은 타지키스탄 프로축구가 5일(한국시간) 지난 시즌 1부 리그 우승팀과 타지키스탄 축구협회컵(FA컵) 우승팀 간의 단판 경기인 슈퍼컵을 '무관중'으로 치르며 새 시즌 일정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도 프로축구 리그를 정상 진행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 AP에 따르면 현재 프로축구 리그를 진행 중인 나라는 타지키스탄을 비롯해 동유럽의 벨라루스, 중미의 니카라과, 아프리카 부룬디 4개국이다. 이들 리그는 축구에 목마른 팬들과 스포츠 도박 산업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시즌 1부 리그 우승팀 이스티크롤이 경기 종료 2분 전부터 동점 골과 역전 골을 꽂아 넣으며 FA컵 우승팀 후잔트를 2-1로 제압,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AP는 "팅 빈 경기장에 '코로나19를 멈춰라'라는 플래카드만 붙은 가운데, 경기 뒤 선수들과 코치진은 평소처럼 한데 어우러져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타지키스탄 프로축구가 5일 슈퍼컵을 무관중으로 치르며 새 시즌 일정을 시작했다. 선수들이 악수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집행부 구성

부회장 7명·이사 33명·감사 2명
 분야별 전문가 등용 변화·혁신 의지

광주시체육회가 민선 시대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광주시체육회(회장 김창준)는 "당연직을 포함한 부회장 7명, 이사 33명, 감사 2명 등 43명으로 집행부 임원진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시체육회는 민선 첫 이사진인 만큼 화합을 바탕으로한 탕평인사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부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학교-전문-생활체육의 조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종목단체 회장 선임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고루 등용해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각 종목 활성화를 위해 종목단체 회장들도 참여시켰고 각계 각층 인사를 골고루 영입했다. 이들은 3년간 활동한다. 신임 부회장은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당연직), 오승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당연직), 김선주 전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금호고속 대표이사, 송상현 전남과학대 교수, 위승두 조선대 체육대학 명예교수,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 등이다.

시체육회는 집행부 43명 외에 남은 정수 7명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선임하기로 했다. 시체육회는 종목단체 회장을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하는데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정수의 20%인 10명 이내만 선임할 아쉽다고 전했다. 시체육회는 향후 체육회 조직 개편에서 상임부회장 직제를 부활하고 기존 사무처장 직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무처장은 공석이다. 김창준 시체육회장은 "신임 집행부 구성의 특징은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기용했다는 점"이라며 "3년 동안 훌륭한 분들과 함께 광주체육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쏟겠다.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시민에게 사랑받는 체육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NBA 전설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미국프로농구(NBA)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사진)가 네이시미스 메모리얼 농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농구 명예의 전당은 5일(한국시간) 지난 1월 헬리콥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브라이언트를 포함해 케빈 가넷, 팀 덩컨 등 8명을 회원으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려면 선정위원회 총투표수 24표 가운데 18표 이상을 받아야 한다. 브라이언트는 NBA LA 레이커스 한팀에서만 20시즌을 뛰며 다섯 차례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했고,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선수(MVP)상도 두 차례 받았다. 또한 올스타에는 18차례 뽑혔고, 득점왕에도 두차례 오르는 등 NBA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덩컨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NBA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뛰며 챔피언결정전 우승 다섯 차례, MVP 3차례 등의 성적을 냈다. 가넷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보스턴 셀틱스, 브루클린 네츠를 거쳐 2015년에는 미네소타로 돌아와 2016년 은퇴했다. 이밖에 한국 여자프로농구에서도 활약했던 타미카 케칭스를 비롯해 루디 톰야노비치, 킴 커키, 바버러 스타브스, 에디 서튼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인비저블맨
3관	월드 워 Z, 스캐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4관	n번째 이별중
5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주디, 다크 워터스
7관	씨네커를 1917, 더 터닝
8관	씨네커를 정직한 후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